

통일부 정례브리핑

2023.7.14.(금) 10:30, 이효정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요 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사단법인 세이브NK 주최로 'NK어셈블리' 북한인권 박람회가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통일부 장관은 오늘 10시에 열리는 개회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이틀 전 북한의 ICBM 발사 현장에 김주애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일부의 평가는 무엇이며 나오지 않았다면, 확인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까?

<답변> 노동신문에서는 김주애가 식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방송에서도 현재까지 김주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현장에 나타났다고, 라는 것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딸을 데리고 동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단해서 말씀드

리지는 않겠습니다.

<질문> 아까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황강댐 관련 해서 혹시 방류 가능성이나 이런 게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통신선이 끊긴 지 10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장마철에 이것 때문에라도 계속 소통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통보하거나 할 수 있는 수단이 또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부는 지난 6월 30일 북한의 댐 방류 시 사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북한의 반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업하여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남북 간 연락채널 중단과 관련해서는 언론 매체를 통한 다른 판문점 연락채널 등을 통해서 우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외통위 회의에서 배우자나 자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고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도 비공개로 전환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어떤 후보자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접근권을 막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공개를 준비 중인지 아니면 관련해서 부처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후보자와 관련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제기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 부대변인의 오늘 정례브리핑이 마지막 정례브리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난 1년간, 그 이전부터도 그랬습시다만 남북관계 경색으로 약간 여러 가지 북한에 촉구나 이런 것들을 할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간단히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난 1년간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 기회를 통해서 북한에 말씀하신 대로 입장을 성명하거나 발표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론, 기자분들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노력을 했는데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통일부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